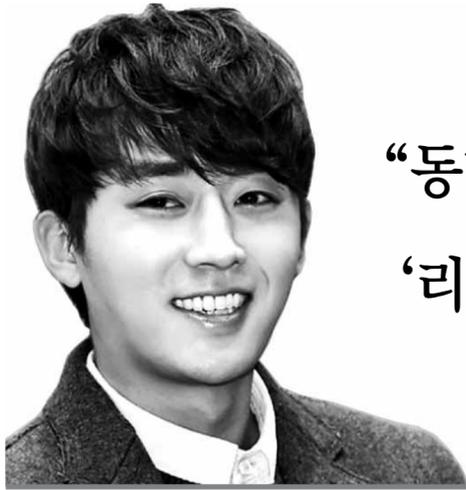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동네 바보 형 NO~ ‘리틀 족장’ 됐어요”

손호준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 출연

정글 PD “호준, 겹치기 논란 잘못 없어”

“잘 생긴 동네 바보 형”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인기가 심상치 않다. 요즘 예능가 블루칩인 배우 손호준(31)의 이야기다. 손호준은 tvN ‘응답하라 1994’(2013) 속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호기심 많은 청년 해태로 분했을 때만 해도 순한 조연 중 하나였다. 작년 여름 나영석 PD의 예능 ‘꽃보다 청춘’에 등장해 ‘잘 생긴 동네 바보형’으로 불린 손호준은 나 PD의 후속작인 ‘삼시세끼’까지 연속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에는 남태평양 섬 팔라우로 SBS TV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with friends)’ 촬영을 다녀왔다.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 방영을 사흘 앞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만난 손호준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자신은 있다고 말했지만 제가 정글에서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김병만 형이 뭔가 알려주면 저도 한 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완성되니 재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걸로 뭔가를 사냥하면서 정글에서 동료를 돌봐준다는 자신감에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요.”

이번 ‘위드 프렌즈’ 편은 코스타리카 등 장소에 중점을 둔 기존 편보다 ‘누구와 정글에 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편에서 손호준의 짝은 ‘응답하라 1994’와 ‘꽃보다 청춘’에서 인연을 맺은 그룹 B1A4의 바로(23)였다. “우정과 생존이 함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다”는 이 PD가 우정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이들이 ‘꽃보다 청춘’의 손호준-바로였다. 몇 달에 걸친 섭외 끝에 이들을 정글행 비행기에 태울 수 있었다. 제작진은 이번 편에서 두 명씩 짝을 지워 24시간 동안 ‘우정의 끈’으로 묶인 채 생활하도록 했다. 손호준은 “끈을 묶고 다니니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다”면서 “하루가 지나고 끈을 풀 때가 되니 끈의 의미를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손호준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 “바로랑 둘이 생존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둘이 졸졸 굶고 있다가 코코넛 크래키 잡혔을 때 정말 맛나고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손호준은 최근 ‘정글의 법칙’과 같은 시간대인 tvN ‘삼시세끼-어촌 편’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한 장근석의 자리에 투입됐다. 겹치기 출연 논란에 휩싸였다. 연출자인 이영준 PD는 “손호준은 (겹치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손호준은 관련 질문에 상기된 얼굴만 한 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는 오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손호준과 바로 외에 류담, 육종완, 샘 해밍턴, 조동혁, 유세아, 샘 오취리가 정글 멤버다.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午, 未, 申, 酉, 戌, 亥) and horoscope content.

연매협 “클라라, 자숙하고 연예활동 자제해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시장질서 무너뜨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최근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클라라(사진)에 대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숙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연매협 상벌조정위원회는 28일 ‘연기자 클라라의 대중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이종계약 문제로 한 차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클라라가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의 당사자로서도 대중에게 연예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을 충실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클라라는 P사 화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사는 클라라 등을 합박죄로 고소했다. 국내 주요 연기자 매니지먼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된 연매협은 현재 242개의 회원사와 43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원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는 약 1400여 명에 달한다.



“아빠를 부탁해” 부녀 스토리로 차별화

이경규·조재현 등 20대 딸들과 출연

한동안 육아에 매달렸던 방송가가 이제 장성한 딸과 아버지에게로 눈을 돌렸다. 다음달 중순부터 SBS TV에서 방송되는 새 예능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가제)는 5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서먹해진 딸이 일주일에 하루씩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프로그램 콘셉트다. 방송인 이경규와 배우 강석우, 조재현, 조민기가 딸들과 함께 출연한다. 제작진은 “대한민국 톱스타인 아버지들이 과연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일지 궁금했다”면서 “네 아버지는 성인이 된 딸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